

“어디에 도움 청해야...” 막막한 미혼모들

제주 미혼 한부모 603명... 미혼모가 미혼부보다 3배 많아 저소득 모자가구 특화 아닌 기존 정책 수혜 지원 미비 전문가 “부모 교육·양육 지원 필요... 돌봄센터 늘려야”

A(21·여)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이던 2017년 아이를 가졌다. 임신한 지 6개월 쯤 지났을 때 몸의 변화를 눈치챘다. 거의 막달에 진입해서야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고, 가족 간 갈등을 겪다 결국 집을 나왔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낳고 2년 가량 아이를 혼자 키웠다.

A씨는 “임신 당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몸의 변화도 낫는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두렵고 막막했다”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던 날도 많았다”고 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 미혼모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를 거

래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미혼모들의 사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슷한 사정을 가진 이들의 사연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 중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의 수가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미혼모·미혼부 603명 중 미혼모가 460명

(76.3%)으로 미혼부 143명(23.7%)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또 도내 전체 한부모 가구(2만593가구·2018년 기준) 중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3047가구다. 이중 모자가구는 2241가구(73.5%), 부자가구는 792가구(25.9%)였다. 또 저소득 청년 한부모 가구 72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가 62가구(86.1%)로, 부자가구 10곳(13.8%)에 비해 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혼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들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화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저소득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도에선 한부모를 대상으로 세대주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화 사업은 없는 상

태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논문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부모 교육 및 실질적 양육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도경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당장 오갈 데 없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얼마 간 돌봐줄 시설이 필요하데,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아 대개 보육원으로 간다”며 “은가족 복귀가 아닌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성장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긴급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갖춰진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임신 전·후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건지, 낳은 후 계획에 대한 의명 상담이 이뤄질 센터와 더불어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자녀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혜기자 dhkang@ihalla.com

멸종위기 ‘불파이톤’ 구조... 유기 의심

애월 수산저수지서 발견 “유기 동물 고유종에 피해”



불파이톤.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반려동물 뱀이 구조됐다. 제주도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16일 제주도 애월읍 수산저수지에서 상자에 넣은 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불파이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말로 ‘공비단뱀’으로 불리는 불파이톤은 아프리카 열대성 우림에 서식하는 파충류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어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양도 양수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에도 제주도 도련동 아파트 단지에 대형 불파이톤이 출몰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를 볼 때 제주에서도 뱀 등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영민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으나 제정된 법조항이 선연적 내용에 그치고 있어 동물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격 등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대책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유기된 동물 중 일부라도 자연환경에 적응할 경우 제주 고유종에 피해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초지 불법전용 월동채소 재배 여전

56필지·110ha 원상회복 명령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5~30일 사이 지역 내 초지 7115ha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초지의 이용현황·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56필지·110ha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인 초지 7115ha 중 95.7%가 관

작물 재배 현상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무단으로 농작물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해 소유자·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농지부서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농업재해피해 보상·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9월 30일 서귀포지역 내 초지 면적은 6977ha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다 138ha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체 6977ha 가운데 95.7%가 관

리지역으로 확인됐다. 녹지지역은 4.1%, 농림지역은 0.2%였다. 현영종기자



즐거워 모래놀이 18일 제주도 삼양동 삼양해수욕장에서 어린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항공기서 소란 40대 벌금형

제주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항공기 착륙이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불만을 품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에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폭언과 소란을 피운 혐의다.

문미숙기자

제주 10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219명

도, 명단 공개... 채납액 161억

제주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가 219명에 달하고 채납액만 총 1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채납자 219명의 명단

을 18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채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채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채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채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채납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채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이며 채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 등이며, 주소지 기준은 도외 37명, 도내 182명(법인대표 제외 38명) 등이다.

특히 채납자의 채납액을 단계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채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채납자는 212명·157억원(법인 110개소·111억원, 개인 102명·46억원), 세외수입 채납자는 7명·4억원(법인 2개소·3억원, 개인 5명·1억원)에 달한다. 이태유기자

건입동 다세대주택서 불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6분여 만에 진화됐다.

18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51분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내부 3.3㎡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소방서 추산 250여만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대혜기자

트래킹 중 심정지 관광객 이송

차귀도에서 트래킹 중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관광객이 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에서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하고 낚싯대 등을 심외해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혜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 코코리 |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성분

| 원료명 | 효과 |
|---------------------------------|-------------------|
| 히토류 |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
| 식이유황(MSM) | 천연항균 작용 |
| 부식산 |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
| 벤토나이트 | 토양개량 |
| 고삼·백합추출물 | 토양해중기피 |
| 아미노산 | 천연질소질 공급 |
|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 필수 미량요소 공급 |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 판매처 농업·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